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배상률 부연구위원  
전화: (044) 415 - 2220  
팩스: (044) 415 - 2369  
drbai@nypi.re.kr www.nypi.re.kr

감수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115

## 사례연구

ERIC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기여로 이뤄진 사례연구는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렵고 경쟁적인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7장 사례연구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여러 다른 연구 패러다임을 모두 반영하며, 아동 연구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윤리적 관행을 개선하도록 구성했다.

모든 성인 참가자들은 아동이 연구 결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조직이 옹호하는 계획을 전달하는 정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 성인들의 기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는 아동의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힘의 불균형을 낮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Bergstrom, Jonsson & Shanahan, 2010). 1차 데이터 수집가로는 공동체 안에서 조기발달 교육을 아동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택했다. 지역 공동체 내의 아동과 부모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정치 및 전통적인 지도계층과 인근 지역에 사는 부모들을 만났다(Ebrahim, 2010).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참가자 모집에서 어려움보다는 더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접근하는 데에 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 리더를 이용해 참가자들을 동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 동의 얻기

연구 초기에 성인과 아동이 연구에 동의하는 일회적 동의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상황에 따라 여러 번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반복적 동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Simons & Usher, 2000). 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수집가에게 여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연구 대상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연구 대상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 대상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특정 연구 활동에 불참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집가들은 첫 그룹 미팅에서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동 보호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보호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 뿐이었다. 초기 연구 설계에 제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집가들은 참가자들이 인터뷰 준비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 기술지원자와 데이터 수집가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진행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벌어졌다. 데이터 수집가들은 그들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매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설계된 절차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 실행의 단계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데 그쳤고,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태도, 비언어적 신호,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잠재적인 저항의 원인, 그리고 데이터 수집가와 참가자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성찰적인 실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부분적으로 연구의 구조적인 설계에 있었다. 서로 다른 기대와 기술, 그리고 능력을 보유한 여러 단체들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가장 꼭대기에는 연구를 의뢰한 위원회 조직이 있었다. 이 조직에게 중요한 것은 연구 참가자들과 관계를 쌓기 위해 거쳐야 할 윤리적인 과정보다는, 궁극적인 연구 결과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계였다. 연구자로서 천천히, 자신의 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성찰해야 하는 윤리적 연구에는 많은 긴장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NGO와 직원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주장하는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아동들과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과 교류할 때 자신의 태도를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NGO 직원들은 아동의 옹호자 및 보호자 역할을 버리고, 훈련된 질적 연구와 실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찰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깊이 있게 경청해, 아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미성숙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윤리적 연구자가 마주할 문제들은 연구를 의뢰하는 단체와 계약하는 순간부터, 윤리적인 연구가 좋은 연구라는 공유된 기대들을 양성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연구 관계자는 연구 초기부터 윤리적인 연구 설계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 성찰이 필요한 윤리적인 연구에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가 연구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 보고서를 쓰는 것만큼이나 연구의 성공과 최종적인 연구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참가자의 수가 많아지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수록, 성찰이 필요한 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공유된 이해, 책무와 실천을 쌓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Bergström, K., Jonsson, L., & Shanahan, H. (2010). Children as co-researchers voicing their preferences in foods and eating: methodological refl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4*, 183-189. doi: 10.1111/j.1470-6431.2009.00843.x

Christensen, P. & Prout, A. (2002). Working with ethical symmetry in social research with children. *Childhood, 9* (4), 447 - 497. doi: 10.1177/0907568202009004007

Ebrahim, H. (2010). Situated ethics: Possibilities for young children as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South African context.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80*, 289-298.

Morrow, V. (2009). *The ethics of social research with children and families in Young Lives: Practical experiences*. Oxford: Young Lives Research Project.

Simons, H., & Usher, R. (2000). *Situated ethics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NY: RoutledgeFalmer.

**자료제공:** Kate McAlpine; Facilitator. Coach. Researcher. Lead Strategist of Caucus for Children's Rights, Tanzania.

**사례연구 15: 지속적인 동의의 문제**

**연구배경:**

장애 아동들을 참여시키는 문화기술적 또는 현장 기반 연구에서 사전 동意的 개념은 연구자가 참가자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사례연구는 학교 기반 연구로서 1년 이상 동일한 학생 그룹(11-12세)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연구자들이 포함되었으며, 학생 중 몇 명은 학교와 학급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관찰했다. 본 연구에는 뉴질랜드의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 7명과 연구자 4명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학교 경험이 장애 학생으로 생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의 예는 한 연구자가 학생 한 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내용이다.

#### **윤리적 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윤리적 지침의 상당수는 사건 의존적인 연구(예를 들어 인터뷰나 설문에 참여하는 것)에서 동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동의를 얻은 후 데이터 수집이 이뤄진다.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아동은 연구 참여가 어떤지 경험했으므로, 참여를 계속할지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학생과 연구자가 쌓은 관계가 발전했다. 연구에 대한 학생의 경험은 연구자와의 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 아동은 연구자가 “잔소리를 하는” 일반 성인과 똑같은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다. 당시 연구자의 고민은 다음과 같았다. 아동이 특정 시간에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연구에 더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연구자가 “학생의 교실에서 조금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은 연구자가 교실에 상주한다는 뜻을 생각하지 못했다. 연구팀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참가자가 연구를 중단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이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다가 다음 날은 다시 관찰아질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참여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하고, 매일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조율했다.

연구팀이 참여 학생에게 준 연구에 대한 정보지는 만일 특정 시간에 관찰되는 것이 불편하면 연구자에게 “좀 가달라”고 거절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실에서 일어나는 성인과 아동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대안을 아동에게 주지 않는다. 학교의 일반적인 힘의 관계에서는 보통의 아동은 성인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장애 아동의 경우, 주변에 더 많은 성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절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 **선택방법:**

교실에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음 예시를 보자. 연구의 초점은 장애 학생의 경험이었던 때문에 연구자는 알렉스(필명) 및 그의 가족과 먼저 대화를 나눴다. 연구자는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었다.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알렉스의 학급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연구자는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자마자 메모를 하는 등의 데이터 수집은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연구자를 한 성인으로서 먼저 알게 되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연구자에게 그들의 수업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편하게 물어봤다.

첫날 수업이 끝날 무렵, 연구자는 교실에서 지내는 동안 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에 대해 메모를 할 것이고, 이들이 보내는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을 걸거나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고 했다. 연구자는 아동들이 집에 가져가서 부모와 의논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 연구자를 더 잘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그래서 연구자가 처음 교실에 와서 이야기할 때 당시 없었던 학생들과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작문 연습을 하는 알렉스를 지나갈 때 그는 연구자가 보기 힘들도록 글을 쓰고 있지 않는 팔로 내용을 가렸다. 연구자는 그를 지나쳤고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알렉스와 단들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새겨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알렉스의 태도를 통해서 알렉스가 다른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알렉스 역시 나가서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연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연구에 도움이 되고 학생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는 점심시간에 알렉스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다른 기회를 찾았다.

학생들은 교실에 성인이 있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으나 연구자가 함께 있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연구자가 교실에 있는 동안 무엇을 적는지 알고 싶어했다. 연구자가 기록한 메모는 지저분했고 그날만 보관하고 버렸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록한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연구자는 내용들을 종합해 나중에 확장된 형식으로 기록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썼는지 보여주고 ‘휘갈겨 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줬다. 이는 자세한 인적 사항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학생들에게 연구자의 초점이 교실 활동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이후로는 학생들이 와서 질문하는 일이 없었다.

#### **성찰적 질문 및 고려사항:**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 경험의 핵심 인물이 된다. 따라서 아동들이 연구자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에 따라 동의의 개념이 형성된다. 이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 연구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또는 다른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할 것인가)?
- 모든 아동이 연구자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어떤 기회들을 제공할 것인가?
- 최초의 서약을 요청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줄 것이며, 진행되는 참여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어떻게 살필 것인가?
- 연구자와의 적절한 교류 관계에 대한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난다. 연구 과정이 학생들에게 아직 관찰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확인할 것인가? 학교에서 아동은 성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성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무언가가 달라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아동은 어떤 실마리를 던지는가?
- 연구자와 아동 간의 관계가 동료 학생을 포함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연구자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아동들을 어떻게 제대로 안심시킬 것인가?
- 교실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데이터를 관찰 또는 기록하는 연구 활동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료제공:** Dr Michael Gaffney,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

---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쇄처 아르빛

사전 승인 없이 본 간행물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관)